

일본 지적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의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홍 정 숙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적장애를 중심으로 하는 진로직업교육의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0년대 들어 일본에서는 직업지도, 진로지도 등의 명칭을 캐리어교육으로 변경하였으며, 일반교육에서 캐리어교육이 강조되면서 지적장애교육에도 그 개념과 실천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일본의 지적장애 분야에서 캐리어교육은 자립 및 사회참가를 지향한 활동을 어린 시절부터 고등부, 나아가서는 성인 이후도 일관성, 계통성, 연속성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일본에서의 캐리어교육의 의미와 추진 배경에 대해 검토하였고, 다음으로 일본 지적장애교육에서의 캐리어교육의 의미와 그 내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캐리어교육의 구체적인 실천내용은 지적장애교육과정에서의 캐리어교육의 위치, 지적장애학생의 캐리어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발달단계표의 내용과 특징, 개별교육지원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일본의 특별지원학교 학습지도요령은 그 목표와 내용이 캐리어교육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2009년 개정에서는 고등부 학습지도요령에 캐리어교육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충실한 직업교육과 진로지도, 장기간의 현장실습, 지역사회유관기관 및 사업체, 가정 등과의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발달단계표는 특별지원학교(지적장애) 초·중·고등부(12년 간)의 진로직업교육을 캐리어교육의 관점에서 계통적으로 인식하는 지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일본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학교에서 독자적인 캐리어 발달단계표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캐리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2009년 3월에 고시된 특별지원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는 개별교육지원계획의 작성이 의무로 규정되었다. 개별교육지원계획은 장애학생을 생애에 걸쳐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학생 개개인의 요구를 파악하여 관계자 및 기관의 연계에 의한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상의 지도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캐리어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개별교육지원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적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일본, 진로직업교육, 캐리어교육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 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학교 졸업 후 성공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조기부터 성인 생활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직업교육은 학생의 성인생활을 준비시키고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의 모든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졸업 후 생활과 관련되나 특히 진로직업교육은 그 대표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은 우리나라 특수교육 법제 및 정책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직업보도’라는 용어로 이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1994년 전면개정에서는 직업교육 및 진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되었고, 전공과 설치에 대한 근거조항도 추가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 전반을 관장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에서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에서도 꾸준히 진로직업교육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왔다. 1차('97~'02) 및 2차('03~'06) 계획에서는 진로직업교육 관련 정책이 충분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직업교육 강화 및 전환 서비스 제공 확대 관련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3차 계획('07~'12)과 제 4차 종합계획('13~'17)에서도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 왔으며,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학교교육 이후의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회의적이라 할 수 있다. 삶의 질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취업률을 살펴볼 때 교육부의 「2013 특수교육 통계」에서는 특수학교 고등학교 졸업생 21.3%, 고등학교 특수 학급 졸업생 40.4%, 전공과 졸업생 31.0%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학생의 취업률은 대체적으로 저조한 상태이다(교육부, 2013). 학교교육에 장애학생 취업률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구체적으로는 장애학생의 안정적 취업을 저조, 일반학교 배치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미흡, 전공과 교육기회 부족 및 맞춤형 운영 미흡, 직업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미흡, 유관기관과 협력 부족 및 지원체제 미흡, 현장실습 및 지역사회 연계 부족 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교육과 학기술통계, 2009).

한편 각 장애별 특성에 따라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적장애 학생은 그 장애의 특성상 일찍부터 적절한 진로 인식·진로 탐색 및 진로 준비 등에 필요한 전환서비스를 제공받아야 성인생활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진로직업교육의 개념을 중등이후의 교육으로 한정하여 조기부터의 체계적, 일관적인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방향제시와 실천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해 가고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의 방향성을 정립해 가기 위한 기초적 작업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교육제도 및 사회·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일본에 주목하여 지적장애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진로직업교육의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일본에 주목한 또 다른 이유는 최근 일본에서는 캐리어교육(career education)이라는 명칭으로 진로직업교육이 일반교육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특별지원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진전되고 있다. 캐리어교육은 생애주기별 교육을 지향하고 체계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는 성과중심교육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전환교육의 개념과 그 지향이 매우 유사한 방식이다. 따라서 일본 지적장애교육에서 진로직업교육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한국 지적장애 전환교육의 정책방향성을 정립함에 있어 긴요하게 참고할 만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본 연구는 일본 캐리어교육 관련 정책 문서(文部科学省, 1999: 2004: 2006; 中央教育審議会, 2011 등), 일본 지적장애 캐리어교육 관련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일본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학습지도요령(文部科学省, 2009) 등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한 문헌연구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과제는 첫째, 일본에서의 캐리어교육의 의미와 추진 배경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일반교육에서의 캐리어교육의 의미와 캐리어교육 추진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고 지적장애교육에서의 캐리어교육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파악한다. 둘째, 일본 지적장애교육에서의 캐리어교육의 추진과 그 특징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위해 지적장애교육과정에서의 캐리어교육의 위치, 지적장애학생의 캐리어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발달단계표의 내용과 특징, 개별교육지원계획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파악한다. 셋째, 이상의 과제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적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에 있어서 해결과제와 시사점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지적장애 진로직업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제시한다.

II. 일본에서의 캐리어교육의 의미와 추진 배경

일본 지적장애교육에서 진로직업교육은 직업지도, 진로지도, 이행지원 등의 명칭으로 일컬어져 왔으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해 왔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최근 일본 지적장애교육에서는 그 명칭을 변경하여 캐리어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캐리어교육은 2000년대 들어 일반교육에서 강조되기 시작하여 지적장애교육에도 영향을 미친 개념 및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본 장에서는 일반교육의 캐리어교육의 흐름을 살펴본 후 지적장애교육에서의 캐리어교육의 의미하는 바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캐리어교육의 의미와 추진의 사회적 배경

일본에서 캐리어교육이란 용어가 정책문서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99년이였다(文部科学省, 1999). 이후 조사연구와 정책보고서(国立教育政策研究所生徒指導研究センター, 2002; 文部科学省, 2004, 中央教育審議會, 2011) 등에서 캐리어교육의 정의와 기본 방향 등이 제시되었으며, 현재까지 캐리어교육은 일본의 중요한 교육정책의 하나로 규정·추진되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캐리어교육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본에서 캐리어교육은 “개개인의 사회적·직업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반이 되는 능력이나 태도를 기르는 것을 통해 캐리어발달을 촉진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캐리어¹⁾발달이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담당해 가면서 자신다운 삶의 방식을 실현해 가는 과정”(中央教育審議會, 2011)을 말한다. 캐리어교육은 캐리어가 아동, 청소년의 발달단계나 그 발달과제의 달성과 깊은 관련을 갖고 단계를 따라 발달해 간다는 사실에 입각해, 유아기의 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中央教育審議會, 2011).

캐리어교육 추진 이전에 일본에서는 진로지도라는 명칭으로 제반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캐리어교육은 이전의 진로지도와 별개의 개념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에서는 진로지도라고 하는 정착된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리어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일까? 직접적인 이유로는 그동안의 진로지도의 실천이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취직이나 진학 등에 관한 지도·지원활동에 치중되어 ‘출구지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 또한 교육과정 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한정된 교육활동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캐리어교육은 유아기부터 발달의 시점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전 생애에 걸쳐 각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며, 이

1) 캐리어란 “개인이 생애 가운데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의 가치나 자신과 역할과의 관계를 연속적 또는 누적적으로 도출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中央教育審議會,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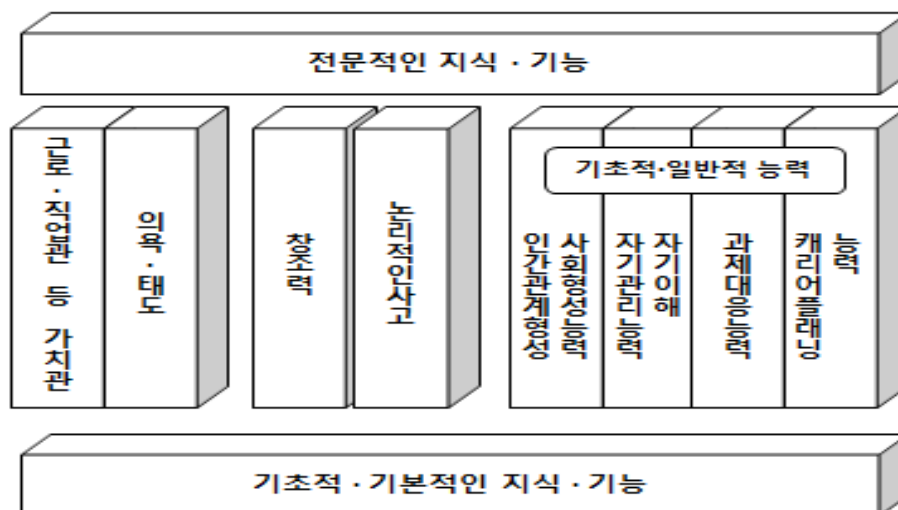
전의 진로지도를 이어받으면서 한층 질적으로 도약한 이념과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캐리어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는 취직·취업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15세부터 24세까지 청년들의 완전 실업률이 약 1.9%, 비정규직고용자의 비율이 약 32%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층이 학교에서 사회·직업으로 원활한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이나 배경으로는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 취업구조의 변화 등 사회전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둘째는 학생들의 생활·의식의 변화 및 자질을 둘러싼 과제와 관련된다. 의사소통 능력 등 직업인으로서의 기본능력의 저하, 직업의식·직업관의 미숙, 신체적 성숙에 비해 정신적·사회적 자립이 늦어지는 경향, 진로의식이나 목적의식이 희박한 채 진학하는 학생들의 증가, 고학력 사회에서의 모라토리엄 경향 등이 지적되고 있다(文部科学省, 2006; 中央教育審議会, 2011).

이와 같은 문제들은 단순히 개별 학생이나 학교교육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계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역할을 담당할 때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책임과 역할의 일환으로 캐리어교육을 학교교육의 기능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캐리어교육은 “사회인·직업인으로 자립하는 사회구성원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바람직한 노동관·직업관의 육성, 개개인의 발달에 적합한 지도, 초·중·고를 통한 조직적·계통적인 대응, 직장체험·인턴쉽 등의 충실을 근간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文部科学省, 2006).

또한 일본에서는 캐리어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직업관·노동관을 육성하는 학습프로그램 강령(예)”(国立教育政策研究所生徒指導研究センター, 2002)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이 장래 자립적인 사회인·직업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나 태도, 자질에 관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 강령은 캐리어교육의 전체 계획 및 각 발달단계에서 도달해야 할 구체적인 능력·태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 지도계획으로, 전국적으로 각 학교가 캐리어교육을 계획하고 추진해 갈 때 중요한 기준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 캐리어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능력은 <그림 1>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 캐리어교육의 동향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의 캐리어교육은 특정 활동이나 지도방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개별 학생들의 발달과 사회인·직업인으로서의 자립을 촉진하는 학교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이념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그 동안의 진로지도에 대한 과제인식을 바탕으로 사회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 학교가 전체 교육활동에 걸쳐 조직적, 체계적으로 캐리어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 사회적·직업적 자립, 원활한 사회·직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능력 」의 요소
(출처: 中央教育審議會, 2011, p. 27)

2. 지적장애교육에서의 캐리어교육의 의미

일본에서 최근 10여 년 간에 걸친 캐리어교육 추진은 일본 특별지원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지적장애교육에서 캐리어교육의 의미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涌井恵(2011)²⁾의 연구에서는 일본 캐리어교육의 의미하는 바를 <그림2>와 같이 밝히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지적장애 캐리어교육은 Brolin과 Halpern 등이 제시하고 있는 전환(transition)의 개념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전환의 개념은 고용에 중점을 둔 고등학교에서 사회로의 전환 개념으로 Will(1984)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이후 전환의 인식을 유아기부터 생애에 걸쳐 취업뿐만 아니라 생활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하였고(Brolin, 1993), 또한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전환 개념을 형성하여, 전환의 목적을 취업만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적응과 자아실현에 두고 학교에서 지역사회·성인생활로의 전환으로 그 개념을 확장시켰던 것이다(Halpern, 1994; Sitlington et al., 2010).

2) 이 연구는 국립특별지원교육 종합연구소에서 주관한 ‘지적장애아의 캐리어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그림 2〉³⁾ 캐리어교육, 전환교육, 직업교육을 둘러싼 개념의 정리
(출처: 涌井恵, 2011, p. 22)

즉, 일본의 지적장애 분야에서 캐리어교육은 자립이나 사회참가를 지향한 활동을 어린 시절부터 고등부 나아가서는 성인 이후도 일관성, 계통성, 연속성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동경도는 지적장애교육에서의 캐리어교육을 “학생의 실태에 따라 노동이나 취업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늘려가고자 하는 태도·의욕(근로관)을 기르고,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주체적으로 생각하여 진로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태도(직업관)를 장애의 특성이나 발달단계에 따라 육성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東京都教育委員会, 2009).

일본의 지적장애교육 분야에서는 이전부터 장애의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 기술, 태도를 기르는 실제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해 왔다. 따라서 지적장애교육에서 캐리어교육은 전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캐리어발달의 시점에서 교육활동 전체를 재검토하고, 개선해 가기 위한 이념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인식이며, 그 핵심은 졸업 후의 자립과 사회참가를 의식한 생애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취업에 주된 초점이 맞춰진 직업교육이라기보다는 삶의 질을 의식한 포괄적인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涌井恵(2011)에 따르면 일본 특별지원교육에서는 “전환”이라는 용어가 익숙한 용어로 자리 잡고 있으나, 캐리어교육이라는 용어가 도입됨으로써 일반교육과 특별지원교육 모두 공통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 초·중·고의 교사가 공통의

3) 여기에서 말하는 진로지도*는 졸업 후의 취업 및 진로의 결정과 관련되는 협의의 진로지도만을 가리키고 있음

관점을 가지고 이 과제의 해결에 임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일본 지적장애교육 분야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캐리어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갈 과제가 여전히 제시되고 있지만(全国特別支援学校知的障害教育校長会, 2010), 정책적으로 캐리어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그 실천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Ⅲ. 일본 지적장애교육에서의 캐리어교육의 추진과 그 특징

그렇다면 지적장애교육에서의 캐리어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는 지적장애교육과정에서의 캐리어교육의 위치, 지적장애학생의 캐리어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발달단계표의 내용과 특징, 개별교육지원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적장애 교육과정⁴⁾에서의 캐리어교육의 위치

일본에서는 2009년 3월에 ‘특별지원학교 유치부 교육요령’, ‘특별지원학교 초등부·중등부 학습지도요령’,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학습지도요령’이 고시되었다. 일본 지적장애 학습지도요령에서 교과와 내용은 초등부 3단계, 중등부 1단계, 고등부 2단계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 단계는 각 학생들에 따른 구체적인 지도내용 설정 및 초등부에서 고등부까지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편성할 때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각 교과와 일반교육의 교과와는 달리 지적장애의 특징이나 학습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자립과 사회참가를 위해 필요한 지식·기능, 태도 등을 익히기 위한 목표 및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홍정숙, 2013).

한편 각 학부의 총칙 및 교과와 목표와 내용들에서 캐리어교육과 관련이 깊은 사항들이 산견된다. 특히 2009년 개정에서는 고등부 학습지도요령에 캐리어교육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어 총칙에 ‘캐리어교육의 추진’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文部科学省, 2009).

4)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일본의 특별지원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시각·청각 등의 다른 장애영역과는 달리,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교과와 목표와 내용 등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지적장애 교육과정’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

제2절 교육과정의 편성

제4관 교육과정의 편성·실시에서 배려할 사항

4. 직업교육에 관해 배려할 사항

- (3) 학교에서는 캐리어교육을 추진(밑줄: 필자, 이하 동일)하기 위해서 지역이나 학교의 실태, 학생의 특성, 진로 등을 고려하여 지역 및 사업체나 노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산업현장 등에서의 장기간의 실습을 도입하는 등 산업체험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이나 사업체 등의 인사들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얻도록 배려한다.

5. 교육과정 실시 등에서 배려할 사항

- (6) 학생이 자신의 존재방식과 삶의 방식을 고려하여 주체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내 조직의 체제를 정비하고, 교사 간 상호 연계를 도모하면서 전체적인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진로지도를 하여 캐리어교육을 추진할 것. 이 때 가정 및 지역이나 복지, 노동 등의 업무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충분히 도모할 것.

이와 같이 볼 때 일본 학습지도요령은 캐리어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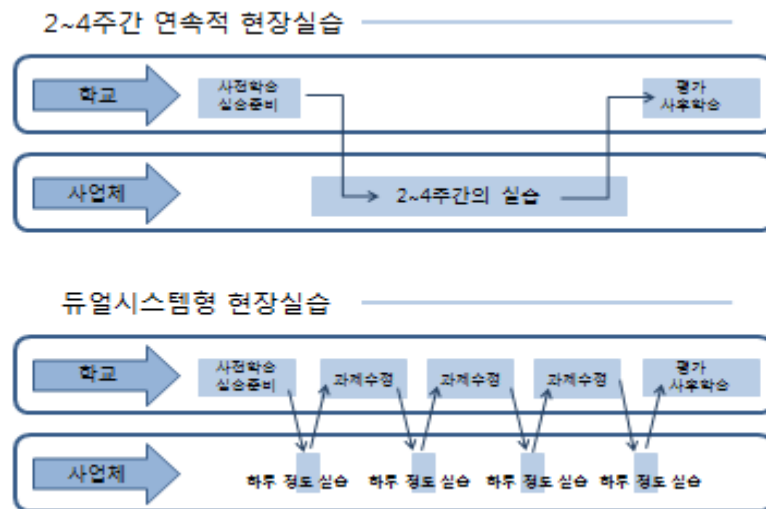
첫째, 학교교육 전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캐리어교육이 특히 고등부에서는 충실한 직업교육이나 진로지도를 통해 핵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2009년 특별지원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의 기본방침 중 하나로 제시된 ‘자립과 사회참가를 위한 직업교육의 충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침에 따라 고등부의 전문교과로 ‘복지’를 신설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 관련 직업에 대한 기초적·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이다.

둘째, 산업현장 등에서의 장기간의 실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본 지적장애교육에서 특별지원학교 중학부 및 고등부의 교육과정에 이미 규정되어 실천되어 왔다. 따라서 木村宣孝(2010a)의 주장과 같이 ‘장기간의 실습’은 양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각 학교의 현장실습이 학생의 ‘캐리어발달’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질적’성과를 내고 있는가 하는 점을 중시하는 관점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총칙에는 구체적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 교사 간 상호 연계, 가정 및 지역과의 연계, 기업체와의 연계 등이 제시되고 있다. 즉 교육·보건·복지·의료 등의 ‘횡적인 연계’, 학교 전체적으로 캐리어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교사 간의 협력’, 교사와 보호자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나아가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중적인 연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루어갈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위와 같은 캐리어교육의 흐름에 부합되는 특징적인 교육실천으로 듀얼시스템을 들 수 있다. 듀얼시스템이란 ‘교육’과 ‘직업훈련’을 동시에 진행하는 제도로 학교에서의 교육과 기업에서의 교육·훈련(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일본 지적장애교육 분야에서는 이전부터 사업체 등에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현장실습을 실시해 왔으나 듀얼시스템은 현장실습을 연속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일주일에 1일의 실습을 8주에 걸쳐 실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림 3>은 기존의 현장실습과 듀얼시스템의 현장실습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기존의 현장실습과 듀얼시스템형 현장실습 비교

(출처: 茨城県教育庁特別支援教育課, 2012, p. 2)

듀얼시스템의 두드러진 성과로는 현장실습을 통해 나타난 구체적인 과제를 학교나 가정에서의 학습 및 지원에 단계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고 기업과의 협력 하에 학생의 적성이나 능력에 따른 직종개발이 가능하며 직업 환경의 조정에도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茨城県教育庁特別支援教育課, 2012). 특별지원교육 분야에서는 교토시립 시라카와(白河) 종합학교의 실천이 전국적으로 주목받았으나 최근에는 일본 내의 여러 학교에서 듀얼시스템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각 학교에서 캐리어교육을 실시하는 의의 중 하나로 ‘교육과정 개선의 촉진’을 들고 있다(文部科学省, 2004). 이는 각 학교에서 계획적·조직적인 캐리어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학생의 캐리어발달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교육과정 편성을

재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캐리어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본에서는 ‘캐리어 발달단계·내용표’등이 개발되어, 이를 지표로 각지에서 새롭게 교육과정이나 지도내용 등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지적장애학생의 캐리어 발달단계·내용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일반교육 분야에서는 캐리어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직업관·노동관을 육성하는 학습프로그램 강령(예)”(国立教育政策研究所生徒指導研究センター, 2002)을 개발하였다. 이 강령을 참고·검토하여 일본 국립특별지원교육 종합연구소에서는 “지적장애학생의 캐리어 발달단계·내용표(시안)”(이하, ‘발달단계표’로 표기함)(2008)을 개발하였는데(<표 1>⁵⁾, 이는 일반교육과 지적장애 캐리어교육 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 시안은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조기부터의 일관적, 계통적인 캐리어교육 추진을 위해서 제시된 것이다.

발달단계표 작성의 의의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특별지원학교(지적장애) 초·중·고등부(12년 간)의 진로직업교육을 캐리어교육의 관점에서 계통적으로 인식하는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존재하지 않는 일본의 현실상 중학교 특별지원학급과 특별지원학교 고등부의 연속적인 직업교육을 충실히 이루기 위한 의도 또한 갖는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캐리어교육과 지적장애교육 캐리어교육의 연속성, 관련성을 확보하기 위한 틀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의 특별지원학급에서 일반교육의 캐리어교육과 연속성이 확보된 캐리어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国立特別支援教育総合研究所, 2008).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발달단계표의 “각 학부 단계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능력”은 초등부 14항목, 중등부 16항목, 고등부 16항목으로, 이 항목들은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캐리어교육 추진 시 중요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항목’은 캐리어교육을 위한 지도계획의 목표, 학습방법, 배려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사항이며, 지식이나 기술의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国立特別支援教育総合研究所, 2008; 2010). 또한 ‘능력(competency)’이란 교육에 의해 습득되는 과제대처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개인의 현재 능력이 아니라 협력적인 노력에 의해 달성되는 ‘육성’의 자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国立特別支援教育総合研究所, 2008).

5) 2008년에 작성된 지적장애학생의 캐리어 발달단계·내용표는 2010년에 개정판이 작성되었고, 그림은 개정판에 의함

〈표 1〉 지적장애학생의 「캐리어발달단계·내용표 (시안)」

[illegible]

資料: 国立特別支援教育総合研究所 (2010)

발달단계표는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실태나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캐리어교육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도 유익한 지표가 될 수 있다(木村宣孝, 2010b). 실제로 일본에서는 발달단계표를 지표로 독자적인 캐리어교육 발달단계표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캐리어교육 추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지역(예를 들어, 東京都教育委員会, 2009)과 학교(石川則子外, 2013)가 증가하고 있다. 上岡一世(2010)에 따르면 학교 수준에서는 발달단계표 작성 작업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재까지 각 학교에서 수행해 왔던 교육을 캐리어교육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점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발달단계표를 작성함에 따라 캐리어교육에 대해 전교직원이 공통된 이해를 도모하게 되고 일관적인 지도 및 가정·관련기관과의 연계의 근거가 되고 있다.

3. 개별교육지원계획

성공적인 캐리어교육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확하다. 특히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의 캐리어교육은 조기부터 지역사회, 가정, 학교 등의 협력에 의해 구체적이고 심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캐리어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개별교육지원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개별교육지원계획은 장애학생을 생애에 걸쳐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학생 개개인의 요구를 파악하여 관계자 및 기관의 연계에 의한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상의 지도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것(滝村雅人, 2007)이다.

2002년 일본 내각부는 ‘장애인기본계획’의 방침으로 ‘개별지원계획’의 작성을 제기하였다. 개별지원계획은 아동의 생애주기별 발달을 관련 전문기관이 적절한 역할 분담 하에 계획하여 실시할 필요성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개별지원계획은 영·유아기부터 학교 졸업 후까지 생애에 걸쳐 일관되게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며, 그 중에서 특히 학교 등의 교육기관이 중심이 되어 작성하는 것이 개별교육지원계획인 것이다. 2009년 3월에 고시된 특별지원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처음으로 ‘개별교육지원계획’의 작성이 의무로 규정되었으며, 여기서는 개별교육지원계획을 “가정이나 의료, 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의하고 있다(文部科学省, 2009).

일본에서는 개별교육지원계획과는 별도로 개별지도계획이 작성되어 왔다. 개별지도계획이란 장애학생의 실태에 맞춘 적절한 지도 및 필요한 지원을 위해 작성하는 계획서로, 1999년부터 치료교육적 활동인 ‘자립활동’과 중복장애학생에 대해 그 작성이 의무화되었다. 또한 2009년부터는 각 교과목의 지도에서도 작성이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개별교육지원계획은 교육과정을 개인에 따라 구체화한 개별지도계획과의 관련성을 지향하면서도 보다 포괄적인 지원계획이라 할 수 있다(木村宣孝, 2010a). 이 두 가지 계획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2>과 같다(熊本県教育委員会, 2007).

<표 2> 개별교육지원계획과 개별지도계획 비교

	개별교육지원계획	개별지도계획
목적	영·유아기부터 학교 졸업 후까지 일관된 지원을 하기 위해 교육 이외의 관계기관 등도 참가하는 포괄적인 계획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명확한 지도 방법이나 내용을 세우기 위한 것이며 학교에서의 세심한 지도를 위한 계획
내용	① 학생에 관한 정보 ② 지원목표 ③ 관계기관·지원자 ④ 지원내용 ⑤ 결과 ⑥ 평가 * 매년 수정하고 2~3년마다 갱신	① 학생에 관한 정보 ② 연간목표 ③ 학기목표 ④ 방법 ⑤ 결과 ⑥ 평가 * 매학기 수정하고 1년마다 갱신
참가자	학교관계자, 보호자, 복지, 의료, 노동 등의 관계기관 등의 관계자	학교관계자, 보호자
대상	장애학생 등, 그 밖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등	

일본에서 개별교육지원계획은 장애학생 본인을 중심에 두고 졸업 이후의 전환과 사회참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의 졸업 후의 사회참여는 교육, 복지, 노동 등의 관계지원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에 의해 촉진되는 것임을 일본 사회가 더욱 주목함에 따라 개별교육지원계획의 과정을 매개로 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 한 예로 일본 후생노동성이 2007년 직업안정국장 통지(通知)를 통해 도도부현 노동국 및 직업안정상담소(헬로우 워크)는 ‘개별교육지원계획에 관련되는 지원회의에의 참가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것’이라는 구체적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개별교육지원계획의 양식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는데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후쿠오카현의 예를 참고로 제시하였다(福岡県教育センター, 2011).

「개별교육지원계획」 양식 예(1)

성명: 1학년 반() 2학년 반() 3학년 반() 4학년 반() 작성일: 년 월 일

출신학교: (담당:)

장래의 희망직업 (지향하는 졸업 후의 모습)

지향 중 기억하고 싶은 능력

<관객자와 지원 내용>
○ 의로 관제
○ 복지 노동관계
○ 가족과 친구 등

<학교의 지원 내용>
○ 학습면
○ 생활면

<즐미 관심>

<잘하는 것>

<장점 등>

행동과 인지의 특성관계

지도 기록(제한 검사 등의 기록을 포함)
(년 월 일)

※정보관리를 위하여 붙여

「개별교육지원계획」 양식 예(2)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학급: 반 담임 1학년 담임 4학년 담임 1학년 담임 1학년 담임 ()초등학교 ()고등학교

반 담임 2학년 담임 5학년 담임 2학년 담임 2학년 담임

반 담임 3학년 담임 6학년 담임 3학년 담임 3학년 담임

<생활면> □가족의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 ■국어 ■산수 수학 □자세오지 □물 전체 움직임 □손의 움직임 □문화 □기타

<학습면> □듣기 □읽기 □쓰기 □기타 □계산하기 □추론하기 □문제해

<건강-운동면> □자세오지 □물 전체 움직임 □손의 움직임 □문화 □기타

합계 () 년 월

지 도 받 고

원래 생활과 장애 생활에 대한 희망바람

본인

지 도 받 고

구분(어떤 상황) 누가 어떤 지도를 하느냐

연계기관명 연락처

연락처 092-333-0000 00의사

연락처 092-222-0000 00담당

연락처1 2

연락처 주소

저는 위의 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인) 작성자 (인)

IV. 논의 및 결론

이상과 같이 일본의 지적장애를 중심으로 하는 진로직업교육의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일본에서는 일반교육에서 캐리어교육이 강조되면서 지적장애교육에도 그 개념과 실천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적장애교육에서 캐리어교육은 전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캐리어발달의 시점에서 교육활동 전체를 재검토하고, 개선해 가기 위한 이념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본 지적장애교육 분야에서 캐리어교육은 자립 및 사회참가를 지향한 활동을 어린 시절부터 고등부 나아가서는 성인 이후도 일관성, 계통성, 연속성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캐리어교육의 구체적인 실천내용은 지적장애 교육과정에서의 캐리어교육의 위상, 지적장애학생의 캐리어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발달단계표의 내용과 특징, 개별교육지원계획의 분석을 통해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의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직업교육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공통된 합의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의 일관된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캐리어교육의 의미하는 바와 목적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초·중·고의 교사가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캐리어교육을 추진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 지적장애교육 분야에서는 여전히 교육현장의 캐리어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갈 과제가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육과정을 캐리어교육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적용하는 등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캐리어교육을 위한 실천의 폭을 넓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로직업교육, 전환교육 등의 용어가 일본의 캐리어교육과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환교육 관련 연구들이 전환교육 성과보다는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김은하, 2013; 배성직, Clark, 2004)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장애학생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을 의식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에 대한 전문가 간의 인식과 실천의 공유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전환교육 전문가들은 전환교육을 취업준비에 중점을 둔 직업교육으로 한정하여 이해하는 경향과 중증장애학생들을 자연스럽게 전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김민영, 2010; 김은주, 2010; 한경임, 박정은, 2009).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13~'17)에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을 확대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책은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원과 같이 고등부를 중심으로 하는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기본 방향 또한 장애학생의 학교 졸업 후 취업기회 확대와 취업률 제고에 있다.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고등부 학생들에 대한 진로직업교

육 기회의 확대와 취업률 제고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취업률 제고라는 양적인 성과에 치중함으로써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대상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전환교육의 의미와 목적을 충분히 아우르지 못하는 과제 또한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연구자뿐만 아니라 현장 전문가들이 공유하고 실천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환교육의 지침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초-중-고의 종적인 체계를 의식한 체계적, 일관적인 진로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일본 캐리어교육에서도 특히 강조되고 있는 사항으로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발달단계에 따른 캐리어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적장애교육에서는 인간관계형성능력, 정보활용능력, 장애설계능력, 의사결정능력이라는 일반교육과 공통된 영역에 근거한 발달단계표가 제시되었고, 많은 특별지원학교 및 학급에서는 이를 근거로 지적장애교육에서 학생들이 익혀야 할 능력을 정리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환교육에 대한 충분한 의미 공유가 전제되지 않고 있고, 특수교육의 근간이 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도 중학교부터의 진로직업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 시절부터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진로직업교육은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은주(2014)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특수교사들은 초등학교부터의 진로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관련정보나 자료 부족,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그 실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본교육과정에서는 진로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진로와 직업교과는 학생의 생애주기별 진로 발달 단계인 진로인식, 진로탐색, 진로준비 등에 이르는 일련의 경험과정에 기초하여 학생이 학교교육을 마친 후 지역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전환교육의 관점에서 실시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그러나 조현정·홍원표(2013)의 연구에서 고등부 특수교사들의 진로직업교육의 어려움 중 하나로 중등부와의 연계 부족을 들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각 학교급별 간의 연계를 토대로 조기부터 졸업 후의 사회참여를 의식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은하(2013)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진로발달 단계에 적절하고 고등학교의 직업훈련과는 구별되는 진로교육 내용 영역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지적장애학생의 경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조기부터의 발달단계에 적절하고 체계적이며 일관적인 진로직업교육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이상진, 김희정, 2013).

일본의 경우에서 살펴본 개별교육지원계획과 발달단계표 등을 통한 제도적 노력은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도 고등부에 집중된 직업교육에서 더 나아가 조기부터의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현장실습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본 지적장애교육 분야에서는 이전부터 사업체 등에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현장실습을 실시해 왔지만 본문에서 제시한 대로 듀얼시스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같이 효과적인 진로직업교육의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또한 개별교육지원계획의 의무화는 가정 및 의료, 복지 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통해 캐리어교육을 추진해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더욱 강하게 추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사업체에서의 현장실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관기관의 연계·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국립특수교육원, 2007; 교육과학기술부, 2009), 효과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이를 개별특수교육기관의 노력에 의지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는 이상, 일본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또한 유관기관을 벗어난 학교-지역사회(산업체)의 연계에서는 오히려 현행 제도가 현장실습 등을 제약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장애학생의 효율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의식한 현행제도의 보완 및 개선이 요구된다.

이상 일본 지적장애 캐리어교육의 전반적인 동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에의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각각의 내용을 실천적인 지침으로 구체화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한계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특수교육 제도에 있어서 많은 유사점이 존재하지만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유무(한국은 설치에 비해 일본은 미설치)와 같은 차이점 또한 존재하며, 일본에서는 고등학교 단독 특수학교 설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적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이 차이의 의미와 이러한 차이가 상대국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도 향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3) 2013 특수교육통계.
 교육과학기술부(2008)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08~'12).
 교육과학기술부(2009)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방안.

- 교육과학기술부(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
- 국립특수교육원(2007) 특수교육기관 진로·직업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 국립특수교육원(2010) **특수교육백서**.
- 김민영(2010) 전환교육 현장 전문가들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제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장애와 고용**, 20(2), 31-54.
- 김은주(2010)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의 정책적 지원 방향. 제17회 국내세미나 발표자료집, 11-23. 국립특수교육원.
- 김은하(2013) 지적장애 중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내용 판별: 전국 중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평정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15(4), 67-89.
- 배성직·Clark(2004) 우리나라 전환교육 평가 연구들의 경향과 과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3), 265-284.
- 여은주(2014) 초등 지적장애 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에 대한 실태 및 인식: 특수학교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 간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상진, 김희정(2013) 특수학교 지적장애 학생의 진로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진로교육 방향. **청소년시설환경**, 11(4), 111-121.
- 조현정·홍원표(2013)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들의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탐색적 연구. **중등교육연구**, 61(1), 169-198.
- 한경임, 박정은(2009)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전환교육 운영 실태와 인식 연구. **통합교육연구**, 4(1), 1-29.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0)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
- 홍정숙(2013) 일본 지적장애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본 한국 기본교육과정예의 시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4(3), 253-279.
- 石川則子外(2013) 知的障害特別支援学校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の取り組みに関する検討ーキャリア教育の研究実践に取り組んだ教員の意識の変化を通してー. **岩手大学教育学部附属教育実践総合センター研究紀要**, 12, 235-251.
- 茨城県教育庁特別支援教育課(2012) デュアルシステム型現場実習の手引き.
- 上岡一世(2010) 第5章 中学部における事例愛媛大学教育学部附属特別支援学校・全国特別支援学校知的障害教育校長会, **特別支援教育のためのキャリア教育の手引き**. ジアース教育新社. pp. 58-63.
- 尾崎祐三・松矢勝広編著(2013) **キャリア教育の充実と障害者雇用のこれから: 特別支援学校における新たな進路指導**. ジアース教育新社.
- 涌井恵(2011) 米国における知的障害のある子どものキャリア教育の動向と日本への示唆. 国立特別支援教育総合研究所研究紀要, 38, 19-30.
- 木村宣孝(2010a) 特別支援教育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の意義と位置付け. 全国特別支援学校知的障害教育校長会編著, **特別支援教育のためのキャリア教育の手引き**. ジアース教育新社. pp. 16-21.
- 木村宣孝(2010b) キャリア発達段階表の作成と意義. 全国特別支援学校知的障害教育校長会編著, **特別支援教育のためのキャリア教育の手引き**. ジアース教育新社. pp. 38-43.
- 木村宣孝・菊地一文(2011) 特別支援教育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の意義と知的障害のある児童生徒の

36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5권 4호)

- 「キャリアプランニング・マトリックス(試案)」作成の経緯. 国立別支援教育総合研究所研究紀要, 38, 3-17.
- 熊本県教育委員会(2007) 個別的教育計画等作成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
- 国立教育政策研究所生徒指導研究センター(2002) 児童生徒の職業観・勤労観を育む教育の推進について(調査研究報告書)
- 国立特別支援教育総合研究所(2008) 知的障害者の確かな就労を目指した指導内容・方法に関する研究. 平成18・19年度課題別研究報告書.
- 国立特別支援教育総合研究所(2010) 知的障害教育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の在り方に関する研究—知的障害のある指導生徒の「キャリア発達段階・内容表(試案)」に基づく実践モデルの構築を目指して— 研究成果報告書.
- 全国特別支援学校知的障害教育校長会(2010) 特別支援教育のためのキャリア教育手引き. ジアース教育新社.
- 福岡県教育センター(2011) 「個別的教育支援計画」「個別の指導計画」作成ハンドブック.
- 文部科学省(1999) 「初等中等教育と高等教育との接続の改善について」(答申)
- 文部科学省(2004) キャリア教育の推進に関する総合的調査研究協力者会議報告書～児童生徒一人一人の勤労観, 職業観を育てるために～.
- 文部科学省(2006) 小学校・中学校・高等学校 キャリア教育推進の手引—児童生徒一人一人の勤労観・職業観を育てるために—.
- 文部科学省(2009) 特別支援学校幼稚部教育要領, 特別支援学校小学部・中学部学習指導要領, 特別支援学校高等部学習指導要領.
- 茨城県教育庁特別支援教育課(2012) 特別支援学校生徒(発達障害等)を対象としたデュアルシステム型現場実習の手引き.
- 中央教育審議会(2011) 「今後の学校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職業教育の在り方について」(答申)
- 滝村雅人(2007) 「特別支援教育」の在り方を考える. 人間文化研究, (8), 59-74.
- 東京都教育委員会(2009) 平成20年度 障害のある児童・生徒の自立と社会参加を目指した指導の研究・開発事業(キャリア教育推進委員会)報告書 知的障害特別支援学校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の推進.
- 東京都教育委員会(2012) 特別支援教育理解啓発資料 管理職必携 個別的教育支援計画」による支援の実践—さらに推進する特別支援教育—.
- Brolin, D. E. (1993). LCCE professional development activity book. VA: The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 Halpern, A. S. (1994). The transition of youth with disabilities to adult life. A position statement of the division on career development and transition. *Career Development for Exceptional Individuals*, 17, 115-124.
- Sitlington, P. L., Neubert, D. A., & Clark, G. M. (2010) *Transition education and servic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5th ed.)*. Boston: Merrill.
- Will, M.(1984). OSERS programming for the transition of youth with disabilities: Bridges from school to working life . Washington, DC: 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 U. S. Office of Education.

Current trends of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Japan and implications for Korea

Hong, Jeong-suk

Daegu University, Dept of special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rends of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Japan, and to present implications for Korea. At the beginning of the 2000s, in Japan, categories such as vocational guidance and career guidance were changed to career education, and since career education was emphasized in general education, the concepts and practices of career education also came to affect the education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Japan, career education in the area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means both performing activities aimed at self-reliance and participating in society, from childhood through school days and into adulthood, systematically and with consistency, and continuity. This study discussed the meaning and background of career education in Japan followed by the meaning and contents of career education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Japan. In this study, the concrete contents of practice of such career education were examined, focusing on the status of career education in curricula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stage table for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 careers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individualized education support plans.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rived from the above study.

First, the objectives and contents in national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in Japan is closely related to career education and the term "career education" has been used in national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for high school for the first time from the 2009 revision. In this revision,

pract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career guidance, long-term field practices, and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related institutions, business corporations in local communities, and homes have been emphasized. Second, the development stage table suggested an index that can recognize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for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or 12 years) of special support schools in terms of career education systematically. Based on the table, various communities and schools have created their own career development stage table to promote systematic career education in Japan. Third, creation of individualized education support plans has been mandatory in the education curriculum for special support schools which was publicly noticed in March 2009. The individualized education support plans is to provide educational guidance or support in order to perform educational support effectively and appropriately via related parties and institutions by identifying the requirements from individual students from the viewpoint of lifetime support of disabled students. In Japan, the individualized education support plans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tool to promote career education. Based on the cases in Japan, this study suggested the implications to improvement direction to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Korea.

Key Words : Japan,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career education